

## 中 반도체 굴기, 韓 장비社 ‘활짝’ 상반기 對中 수출 1조원 돌파

전년동기 대비 45% 증가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이 올 상반기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 업체가 공격적인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어서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모는 1조3460억원이었다. 9253억 원어치를 수출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5%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역대 최다인 2015년 하반기(1조2208억원)를 넘어섰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를 제조하거나 고품질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클린룸 장비, 제조한 반도체 품질을 확인하는 검사 장비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생산해바로 공급하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장비 호황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반도체 산업에 2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 제조 및 검사 장비 업체들은 내수시장은 불경기 영



향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중국 수출이 늘어나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반도체 설비 75%를 국산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국 산업 육성에 나서기 때문이다. 연 2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비 수입을 줄이겠다는 것이 대중국 수출이 줄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가 수출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술 격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오면 한국도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작은평화 내 손안의 스마트 에어텐트

## 무거운 금속폴대 없이 2분 만에 설치하는 에어텐트

‘가볍고 설치하기 편한 제품은 없을까? 누구나 한번쯤 텐트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다. 들고다니기 무겁고 부피도 큰 텐트 설치까지 어려워서다. 등산을 좋아하는 정승원 작은평화 대표(60)는 2014년부터 가볍고 실용적인 텐트 개발에 몰두했다. 그 결과 충전이 가능한 휴대용 공기압축기(컴프레서)에 연결하면 2분 남짓이면 에어폴대에 바람이 차차 동으로 모양이 완성되는 텐트를 개발했다. ‘내 손안의 스마트 에어텐트’다. 자금 조달이 마무리되면 연내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누구나 손쉽게 설치하는 텐트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좋아하는 정 대표는 경력이 다채롭다. 출판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지퍼 회사도 설립하고 초밥집도 운영했다.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상기도 최대 7개까지 운영했다. 그러다가 아들들이 모두 취직한 2014년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가족에게 선언했다. 재정업의 아이템은 바로 텐트. 작은평화라는 회사명은 동생이 운영하던 출

설립	2014년 5월
본사	서울 강북구 삼양로
제품	내 손안의 스마트 에어텐트
특징	강고압 공기를 컴프레서로 에어폴대에 삽입 2인용 텐트 무게 1kg대로 가벼워

5~6인용 텐트 무게 10kg 이동시엔 배낭 옆에 ‘꼭’

방수·투습 원단으로 악천후에도 걱정 없어

재난용·반려견하우스 등 다양한 제품군 확대 예정

판사 이름에서 따왔다. 정 대표는 “2000년에 공기를 넣어 헬멧으로 쓴 뒤 바람을 빼서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에어헬멧 특허를 받았으며 “이 특허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취미인 등산을 다니다가 텐트 개발 아이디어를 냈다. 등산을 하다가 점심 때 갑자기 비바람이 불



정승원 작은평화 대표가 스마트 에어텐트 제품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거나 햇빛이 뜨거워 곤란한 적이 많았던 경험에서다. 정 대표는 “컴프레서로 간편하게 설치하고 배낭 옆에 끼고 다닐 수 있는 텐트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무게, 경쟁 제품의 3분의1 금방 상용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에어텐트를 제품화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비를 막거나 습기를 잘 내보내는 방수·투습 원단은 대구 나 중국 등지에서 주문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해결했다. 에어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필수품인 공기압축기도 중국에서 OEM으로 제조한다. 이 제품은 축구공자전거 오토바이 등에도 바람을 넣을 수 있어 실용적이다.

문제는 텐트의 무게를 결정하는 에어폴대였다. 폴리우레탄으로 제작한 폴대 내부 튜브를 가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다. 튜브

두께와 에어폴대 굵기는 경쟁사의 절반 이하인 각각 0.15~0.3mm, 30~50mm로 했다. 정 대표는 얇아진 튜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피를 씌웠다.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다음으로 질긴 타이코트사로 얇은 튜브를 감싼 것이다. 공기압은 경쟁사 제품보다 3배 이상 높은 30프사이(psi)에서 에어폴대가 튼튼한 기동 역할을 한다. 텐트 내부 천장에서 두 에어폴대가 X자로 교차하는 부분을 접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1년 이상 걸렸다. 경쟁사 텐트(5~6인용) 무게는 30kg에 육박하지만 스마트 에어텐트는 10kg 남짓에 불과하다.

텐트의 용도가 등산과 낚시는 물론 재난, 난방, 골프용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스마트 에어텐트는 에어폴대 모양을 변형해 여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sjlee@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7~9월 으뜸중기 제품 △어택트-다운핏 △지비솔루션즈-루나 스퀘어 엘리스 △그린테크를-360 폰즈 칫솔 △에어택-마블 공기청정기 △작은평화-내 손안의 스마트 에어텐트 △테크온비전-화면 분할 모니터 △아이티비즈-마우스 스마트 패치 △오토상-자동차용 걸레 진공청소기 △푸드마스터그림-덕터탈라 팻 밀크 △홀룩스닷컴-아쿠아핏 중성식물공기정화기 △대장-하이진물병, 시크릿보틀 △세일바이오-올인원 크림바

◆클라우드펀딩으로 자금 조달 정 대표는 이르면 이달 클라우드펀딩 업체 텀블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1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 제품을 제공하는 리워드 형태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사무실 공간도 넓히고 에어폴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 유치도 협의 중이다. 정 대표는 “등산이 나니들이용 텐트를 시작으로 재난용 텐트와 반려견하우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기압축기도 소형으로 제작해 보관하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campus **JOB & JOY** Vol.150  
2018.08.13~09.02

**대학창업의 길을 묻다**  
이철규 건국대 창업지원단장  
“중국 유학생과 협력해 해외 공략할 것”

**‘일본 기업 취업박람회’**  
日강소기업 한 자리에  
9월 19일 킨텍스

폭염 때 인형 탈 쓰고,  
하루 물 7리터도 모자라는...  
**무더위 속 극한 알바**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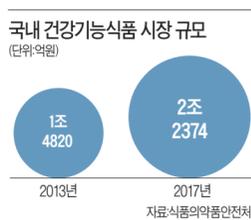
가격 4,000원 / 정가 80,000원 / 구독문의 02-360-4841 / 광고문의 02-360-4821 / 사업문의 02-360-4831

## 건강기능식품에 눈 돌리는 제약사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장하는 제약회사가 늘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등 이상기후 등으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0~30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휴온스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성신비에스티 인수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성신비에스티는 홍삼 가공 및 생산능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휴온스는 비타민C, 히나부쉬 등에 주력하던 건강기능식품 사업 분야를 홍삼으로 확대했다. 휴온스 관계자는 “갈수록 웰니스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 일동제약 등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선보였다. 유한양행은 젊은 층의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 등을 꾸민 건강기능식품 매장 겸 식당 ‘뉴오리진’ 1호점을 지난 4월 서울 여의도동 IFC 몰에 열었다. 이달 중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 두 번째 매장을 열 계획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홍삼군, 녹용군, 루테인, 비타



휴온스, 전문기업 인수 유한양행·일동제약 등 독자 브랜드 론칭 구매 느는 20~30대 잡아라

민, 프로바이오틱스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장에 들여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마이나’를 내세워 이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제품을 고를 수 있다는 콘셉트로 1년 만에 관련 제품군을 30여 종까지

늘렸다. 제약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 투자를 늘리는 건 관련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3년 1조4820억원에서 2017년 2조2374억원으로 4년 동안 51% 커졌다. 수출 전망도 밝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올해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6% 성장한 약 1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건강기능식품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며 “인접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약 개발을 추진하되 단기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유전자치료제 신경 재생 원리 확인”

바이로메드, 연구결과 발표

바이로메드는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VM202’에 적용한 간세포성 장인자(HGF) 유전자의 신경 재생 원리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VM202는 새로운 혈관 생성과 신경 성장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산을 돕는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바이로메드는 국제학술지 ‘생물화학·생물물리연구(BBRC)’ 온라인판에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바이로메드는 이번 연구에서 HGF가 수반세포에서 c-Fos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 단백질

이 증가하면서 말초신경의 재생을 돕는 슈반세포가 활성화되고,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를 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선영 대표는 “VM202가 어떻게 망가진 신경을 고치고, 장기간 진통 효과를 내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바이로메드는 VM202를 이용해 당뇨병성 신경병증(VM202-DPN), 허혈성 지체질환(VM202-PAD), 근위축성 측삭경화증(VM202-ALS) 등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상 2.3상을 진행 중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 NEW! 새로 나왔어요

팬이 완구 ‘듀얼무타타’

완구 및 유아용품 기업인 가이아 코퍼레이션이 팬이장난감 신제품 ‘듀얼무타타’를 출시했다.

듀얼무타타는 팬이에 에너지링을 결합해 팬이싸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팬이 분체와 에너지링, 팬이를 둘러주는 엔진부스터로 구성됐다. 팬이는 ‘레드 블레이즈 드래곤(사진)’, ‘월드 갓 블레이즈’ 등 6종류다. 가격은 2만5000원. 지름 30cm 원형 경기장과 팬이 세트 두 개가 포함된 2인용 배틀세트는 6만1000원.